

KRIVET Issue Brief

2013

34호

발행인 박영범 | 발행일 2013년 8월 30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근로시간 단축은 직업훈련 참여를 높이는가?

-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생긴 여유시간을 개인은 주로 휴식/수면(36.3%), 가사일(21.7%), 자기개발(13.1%)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40시간제의 도입으로 늘어난 여유시간을 자기개발로 활용하는 비율이 여자(10.3%), 고졸이하(6.3%), 40대 이상(10.7%)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등 근로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
- 주40시간제 확대 적용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2007년 45.9시간에서 2012년 42.0시간으로 감소했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은 24.9%에서 37.2%로 증가했음.
- 주당 36~40시간 근로자에 비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41시간 이상 상시적 초과근로 집단일수록 훈련참여율이 낮음.
- 2004~2008년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한 근로자의 훈련참여율(26.1%)이 감소하지 않은 근로자(11.0%)보다 15.1%p 높았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숙련을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 될 필요가 있음.

01 분석 배경 및 분석 자료

| 최근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1년의 경우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평균(연간 1,776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시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시간 및 초과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또한 지적되고 있음.
- 주40시간제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됨.

〈표 1〉 대상별 주40시간제 적용 시기

시점	2004.7.1	2005.7.1	2006.7.1	2007.7.1	2008.7.1	2011.7.1
대상	1,000인 이상, 공기업·금융보험업	300~999인	100~299인	50~99인	20~49인	5~19인

|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보는 관점이 필요함.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숙련 및 창의성을 높이는 기회로 보는 관점이 필요함.
 - 저성장시대에 고효율-고부가가치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늘어난 여유시간을 휴식·여가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KRIVET 모바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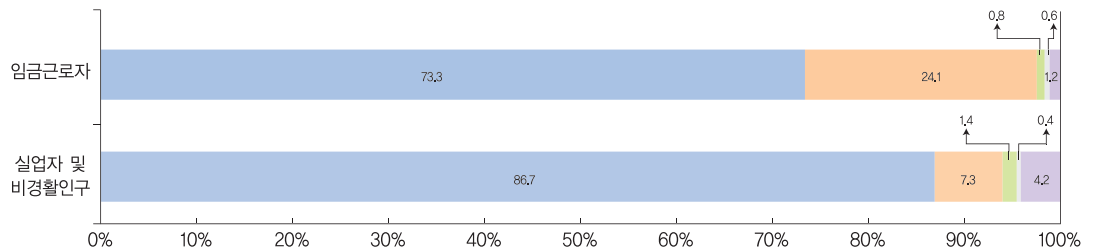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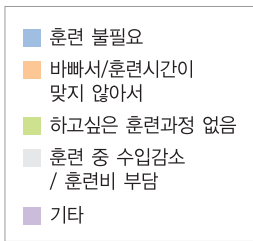
|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7차(2004년)~13차(2010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 5천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매년 추적 조사
 -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조사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7년~2012년 각년도 8월) 자료

02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자기개발 활동

| 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로 '바빠서/훈련시간이 맞지 않아서' 의 비중이 높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의사가 없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바빠서/교육훈련과정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24.1%로 나타남.
 - 이는 "훈련이 필요 없다"(73.3%)는 응답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
 -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포이나 시간부족의 비중(7.3%)이 약간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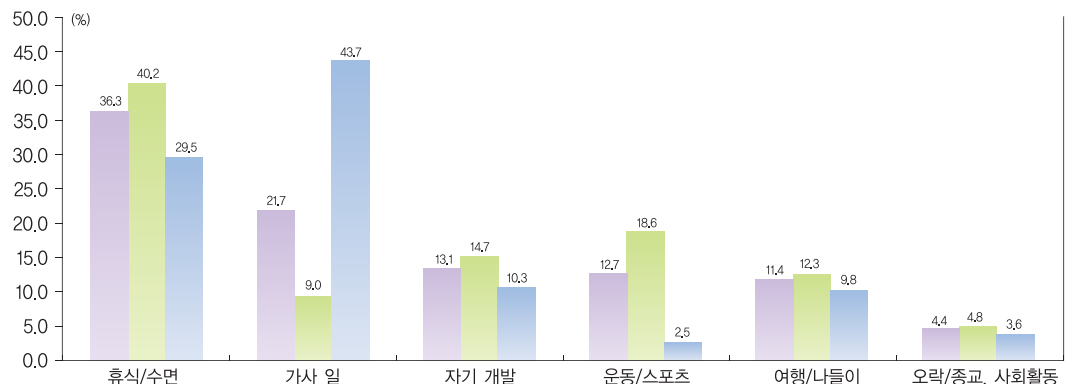


[그림 1]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자료 |
KLIPS 13차 조사(2010).

| 주40시간제 도입으로 늘어난 자유시간의 활용(2004년 이후)

- 조사 시점에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단축 이후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조사함.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늘어난 자유시간의 활용을 이전과 비교할 때, 휴식/수면(TV시청 포함)이 36.3%로 가장 많이 늘어났음.
 - 다음으로 가사일 21.7%, 자기개발 13.1%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휴식/수면(40.2%)과 운동·스포츠(18.6%)에, 여자는 가사일(43.7%)과 휴식/수면(29.5%)에 사용함.



[그림 2]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자기개발 활동(전체·성별): 2005~2008년의 경우

| 자료 |
KLIPS 8차(2005)~11차(2008).

- 자기개발활동은 남자와 청년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전문가와 기술·준전문가, 사무직 종사자일수록 높았음.

〈표 2〉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자기개발 활동: 2005~2008년의 경우

(단위: 명, %)

		응답 수 ¹⁾	휴식/수면	가사 일	자기 개발	운동/스포츠	여행/나들이	오락/종교, 사회활동
학력	고졸이하	304	37.2	29.0	6.3	14.8	7.6	4.6
	전문대졸	199	40.7	21.6	12.6	10.1	8.5	6.0
	대졸 이상	479	33.8	17.1	17.8	12.5	15.0	3.6
연령	20대	203	47.3	13.8	19.2	4.4	10.3	4.4
	30대	379	32.5	26.4	12.4	10.0	13.5	5.0
	40대 이상	401	34.4	21.2	10.7	19.5	10.0	3.7
직종	관리	16	25.0	6.3	6.3	37.5	18.8	6.3
	전문가	210	34.3	22.4	17.1	7.6	14.3	4.3
	기술·준전문가	170	37.7	17.1	14.7	17.7	7.7	4.1
	사무직	289	35.0	22.5	14.9	11.1	11.8	4.8
	서비스직	50	28.0	22.0	12.0	18.0	14.0	4.0
	판매직	30	26.7	46.7	0.0	6.7	6.7	10.0
	숙련, 기능직	96	43.8	14.6	8.3	15.6	16.7	1.0
	장치기계조립	83	43.4	28.9	4.8	15.7	3.6	3.6
단순노무	33	42.4	24.2	12.1	3.0	9.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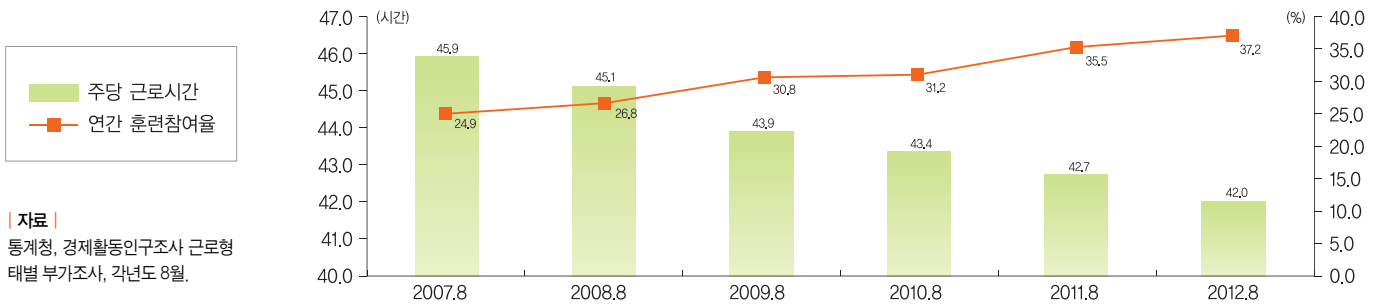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된 임금근로자만 조사

자료 | KLIPS 8차(2005)~11차(2008).

03 근로시간과 훈련참여율 추이

| 주40시간제가 확대되면서 근로시간은 감소, 훈련참여율은 증가

- 주40시간제가 적용된 이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 훈련참여율은 증가 추세를 보임.
 - 중규모 사업장(50인 이상)까지 적용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당근로시간은 45.9시간에서 42.0시간으로 3.9시간 감소
 -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은 24.9%에서 37.2%로 12.3%p 증가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이거나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또는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집단일수록 훈련참여율이 낮음.
 -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업체의 근로자가 미 실시 업체의 근로자보다 훈련참여율도 높고 증가 추세임.
 - 근로시간별로 보면, 주당 36~40시간 집단의 훈련참여율이 가장 높으며(49.5%), 41시간 이상 근로집단은 22.4%, 36시간 미만 집단은 18.4%임(2012년 기준).

〈표 3〉 근로시간 특성별 훈련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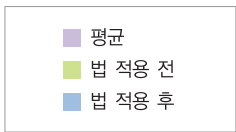
		2007.8	2008.8	2009.8	2010.8	2011.8	2012.8
주5일(40시간) 근로	실시	-	41.6	44.6	44.9	49.3	51.1
	미실시	-	14.1	17.1	18.0	19.6	13.8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26.2	28.4	32.3	32.9	37.5	39.4
	시간제	8.6	8.4	14.9	14.5	16.5	18.0
총 근로 시간별	1~35 시간	8.9	8.6	15.1	14.6	17.0	18.4
	36~40 시간	37.8	38.8	42.4	42.6	46.5	49.5
	41 시간 이상	19.2	20.1	22.2	23.3	26.7	2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04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훈련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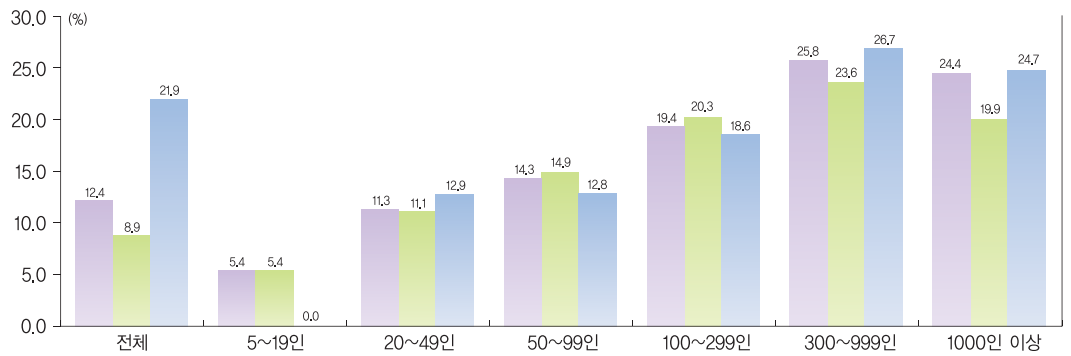
주40시간제 법적용 후, 실근로시간 감소 시 근로자 훈련참여율 증가

- 2004~2008년 동안 사업체에 법 적용 여부별로 훈련참여율을 집계하면, 법 적용된 경우가 21.9%로 법 적용 전인 경우(8.9%)보다 13.0%p 높게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적용 이후 훈련참여율이 더 높아짐.
 - 중규모(50~299인)에 속한 근로자는 법 적용 이후 훈련참여율이 약간 낮아졌는데, 이는 법적용 초기였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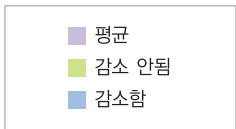
주 |
훈련참여율은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규모별로 참여자 수를 응답자 수로 나눈 것임.

자료 |
KLIPS 7차(2004)~11차(2008) poo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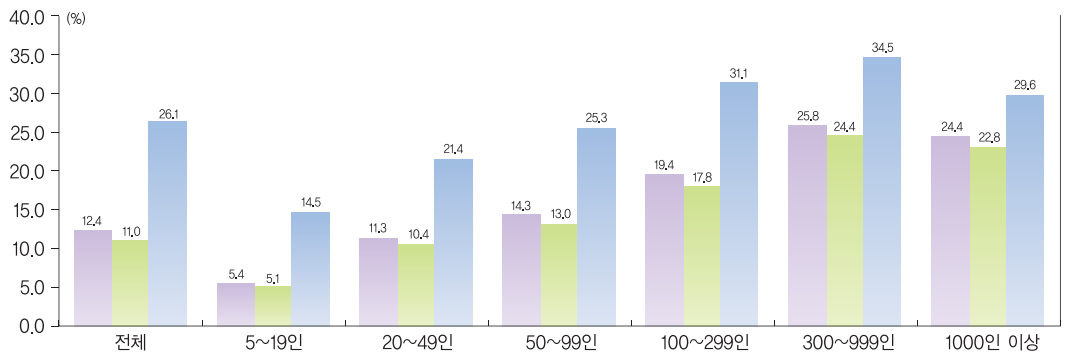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주40시간제 법 적용 전후 근로자의 훈련참여율

-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 여부별로 살펴보면, 실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의 훈련참여율이 26.1%로 감소하지 않은 경우(11.0%)보다 15.1%p 높았음.
 -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이 감소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훈련참여율이 높았음.



주 |
훈련참여율은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규모별로 참여자 수를 응답자 수로 나눈 것임.

자료 |
KLIPS 7차(2004)~11차(2008) pooling.



[그림 5] 사업체 규모별 실근로시간 감소 여부별 근로자의 훈련참여율

05 시사점

-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숙련을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을 휴식이나 여가 외에 자기개발과 직업훈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저학력, 단시간근로자 또는 상시적 초과근로자, 생산관련직, 중소기업체 근로자 등 취약집단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훈련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김미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